

인 사 말

종정예하의 지혜와 정진의 덕화를 존경하며,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의 고견과 격려를 항상 공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정예하를 추대법회에 뜻 깊은 참석을 해주셔서 종단의 밝은 미래와 국민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공덕의 시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로스님들께서 이루신 공덕에 누가되지 않도록 종단 운영에 신중함을 다하겠습니다.

종단 집행부는 지혜와 자비를 나누고 우리 사회에 진정한 행복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면서, 불자 모두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가짐, 그리고 넓은 이해심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사부대중 모두의 숙원인 총본산 성역화와 승려복지 등, 중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취를 한걸음씩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깊은 관심으로 격려를 해주셨던 만큼, 6월로 예정하고 있는 성역화사업의 역사적인 기공식에도 함께하셔서 더욱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승가의 육성, 사찰운영의 혁신, 올바른 불자상 확립과 신행혁신 등, 근본적인 변화까지 아우르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양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제나처럼 소중한 경험과 지혜의 가르침으로 앞길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건 삶의 주인으로 정진하며 세상의 안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임자 모두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도 성심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종단의 사표로서 깊은 가르침을 주셨던 여러 대종사께서 이제는 명예원로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랜 헌신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근심을 등불삼아 종단의 발전과 사회로의 회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원장으로서 원로 대종사를 모셨던 영예를 깊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진력을 널리 헤량해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주셨던 공심과 원력의 가르침대로 종단의 소임을 여법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종의 마음과 경륜을 지니신 원로스님의 지혜로움이 매우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종단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언제나처럼 건강하시고 청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